

〈雨念齋手書〉所載 通信使行 관련 편지 연구*

한태 문**

|| 차례 ||

1. 머리말
2. <雨念齋手書> 통신사행 관련 편지의 형성배경
3. <雨念齋手書>의 내용적 특징
4. 마무리

【국문초록】

<雨念齋手書>는 이병기가 펴낸 『近朝內簡選』에 수록된 이봉환의 한글편지를 묶은 것으로, 크게 어머니에게 부친 19편과 아내에게 부친 6편 등 총 25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어머니께 부친 편지는 1747년 일본 9대 將軍인 德川家重의 습직을 축하하는 통신사행에 당시 국내에서 詩文으로 이름을 떨치던 이봉환이 書記로 참여하여 어머니와 한글편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산출되었다. 특히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사행길에서 가족과 주고 받은 편지는 고독과 두려움을 덜고 자신을 가족과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그 결과 <雨念齋手書> 소재 통신사행 관련 편지가 형성될 수 있었다.

<雨念齋手書>에 수록된 통신사행 관련 편지는 빈번한 안부 여쭙기에서 엿볼 수 있는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 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사행에 필요한 물건의 요청, 사행 참여의 자부심과 청렴한 사행의 기대, 그리고 사행체험의 특이사항에 대한 자세한 전달의지 등을 내용적 특징으로 담고 있었다.

이처럼 <雨念齋手書> 소재 통신사행 관련 편지는 통신사행에 참여한 사행원이 남긴 현존 유일한 한글편지모음으로, 당대 사행원들의 관심사는 물론 가족간에 오가는 사연들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 우념재수서, 통신사, 이봉환, 편지, 시문창화

1. 머리말

조선시대 우리 민족의 공식적인 해외체험은 중국과 일본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의 기본적인 외교정책은 역사적·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事大’의 禮로 ‘朝天使’(明)와 ‘燕行使’(淸)를, 일본에 대해서는 ‘交隣’의 禮로 ‘通信使’와 ‘問慰行’을 파견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통신사는 매년 定期的으로 파견한 연행사와 달리, 400-5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만 파견한 不定期 사행이었다. 게다가 배를 이용한 바닷길 노정이 무려 3/5을 차지하는¹⁾ 험난한 여행이었다. 이처럼 목숨을 건 사행에서 사행원들은 詩文과 筆談을 통해 일본인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소중한 이국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오늘에 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에서 출간된 『桑韓筆語唱和集』(1682)을 비롯한 ‘筆談唱和集’과, 申維翰의 『海游錄』(1719)을 비롯한 ‘通信使 使行錄’이다.

그동안 이들을 바탕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최근에는 이들 성과들을 모은 연구총서가 발간되기도 했지만²⁾,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통신사 사행원과 가족간에 오간 편지글은 소외되어 있었다. 그것은 가족·친지와 편지를 주고 받았다는 기록은 사행록에 많이 남아 있지만, 정작 편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병기가 펴낸 『近朝內簡選』³⁾에는 통신사행에 참여한 李鳳煥

1) 趙曦, 『海槎日記』 5, 甲申年 6月 22日. 往來一萬一千三百餘里 水路居五分之三.

2) 조규익·정영문,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학고방, 2008.

의 편지글을 모은 <雨念齋手書>가 宣祖御筆과 혜경궁 홍씨 등의 서간을 정리한 <封書> 등과 함께 수록되어 있어 다행히 그 편린을 엿볼 수 있다. <雨念齋手書>는 1747년 통신사행에 書記로 참여한 이봉환이 어머니에게 쓴 19편과,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아내에게 보낸 6편 등 총 25편의 한글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자는 통신사 관련 문헌 가운데 현재까지 전하는 유일한 한글편지 묶음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남다르다.

<雨念齋手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이를 통해 1747년 통신사의 노정을 하행과 상행으로 나누어 밝힌 백두현의 연구⁴⁾가 유일하다. 본고에서는 <雨念齋手書>에 포함된 통신사 관련 19편의 편지를 중심으로 그 형성배경과 내용적 특징을 살피기로 한다.

2. <雨念齋手書> 통신사행 관련 편지의 형성배경

1) 1747년 통신사의 파견

1428년 통신사 이래 대부분의 통신사 파견은 일본 幕府의 최고 권력자인 將軍職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물론 통신사는 일본 全域의 통합을 축하하거나 將軍의 아들이 탄생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되기도 했지만⁵⁾, 대체로 전직 장군의 逝去나 讓位, 또는 후임 장군의 계승에 대해 致祭를 통한 조문과 襲職에 대한 축하형식을 띤 것이었다. 조선후기에 행해진 12차례의 통신사행 중 10차에 해당하는 1747년 통신사 역시 예외가

3) 李秉岐 편주, 『近朝內簡選』, 國際文化館, 1947.

4) 백두현, 「한글 편지에 나타난 조선통신사의 노정(路程)」, 『선비문화』5호, 남명학연구원, 2005, 65-72쪽.

5) 조선후기의 경우 전자는 1617년, 후자는 1643년 통신사가 이에 해당한다.

아니었다.

1747년 통신사의 파견은 1745년 9월 25일, 제8대 장군 德川吉宗이 그 아들 德川家重에게 將軍職을 讓位하는 데서 비롯된다. 德川吉宗은 德川家康 시대로의 복귀와 節儉·尙武로 대표되는 ‘享保改革(1716-1745)’을 주창한 인물이다. 그는 1719년 통신사 제술관 신유한으로부터 聖君으로서의 자세와 일본 문화에 대한 뚜렷한 주체의식을 지닌 이로⁶⁾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1745년 11월 2일, 德川家重이 아버지를 이어 9대 장군이 되자 이듬해 1월 對馬島主는 사자 淺井與左衛門을 예조참판 金尙魯에게 보내어 그 사실을 알린다.⁷⁾ 그 사이 일본은 세금징수에 불만을 품은 民亂이 빈발하고, 吉宗이 생전에 家重에게 傳位한 것이 총명한 손자 家治에게 빨리 傳位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떠도는⁸⁾ 등 민심이 흉흉하여 幕府 將軍에 대한 聘禮로 비취지는 통신사의 訪日이 절실하였다.

조선 역시 영조가 蕩平策·법치제도의 재정비·수취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국가질서가 재정비되어 안정을 구가하던 때라, 남쪽 변방의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까닭이 없었다. 그 결과 조선은 幕府 將軍의 襲職축하라는 전례의 존중과 선린관계의 지속을 명분으로 1747년 3월 21일 정사 洪啓禧, 부사 南泰耆, 종사관 曹命采를 삼사로 임명한 뒤, 11월 28일 약 470여 명의 사절단을⁹⁾ 파견하게 된다.

6)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 1995, 98-99쪽. 신유한의 평가 내용은 申維翰, 『海游錄』中, 己亥年 9月 27日의 기록을 참조.

7) 『同文彙考』附編, 卷3, 告慶 23, 丙寅, <島主告關白新立序>.

8)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 『聞見總錄』, <江戸>. 初以家重謂不克堪 而欲傳位於宗武 及宗重生若君家治 而穎悟明秀 且有文才 吉宗甚愛之 遂傳位於家重 以爲亟及若君之地 故倭人以爲宗重之禪位 又不出十年之內云矣.

9) 조명채의 『봉사일본시문견록』이 사행인원을 아예 기록하지 않은 데 비해, 洪景海는 『隨槎日錄』에서 正使船 166명, 副使船 160명, 從事官船 146명 등 총 472명으로 기록

1747년 통신사의 전체 노정을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는 사행록은 없다. 곧 從事官 曹命采의 『奉使日本時間見錄』은 부산에서 일본을 향해 배를 띄운 2월 12일부터 사명을 마치고 부산에 도착한 다음날인 윤 7월 13일에 <渡海狀啓>를 조정에 발송하는 것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또 子弟軍官 洪景海의 『隨槎日錄』은 서울 출발을 시작으로 7월 17일 귀로인 壹岐島 도착까지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 사행록을 합치면 다음과 같은 전체 사행노정이 나타나게 된다.

구 분		노 정
往路	국내	良才(11.28)-龍仁(11.29)-竹山(11.30)-德面村(12.1)-忠州(12.2)-安保驛(12.3)-聞慶(12.4)-龍宮(12.5)-醴泉(12.6)-安東(12.7)-義城(12.8)-新寧(12.10)-永川(12.11-12)-慶州(12.13)-蔚山(12.14)-龍堂(12.15)-東萊(12.16)-부산(12.18)
	일본	對馬島(1748.2.16)-壹岐島(3.17)-藍島(4.3)-赤間關(4.6)-上關(4.8)-津和(4.10)-蒲刈(4.11)-韮浦(4.15)-牛窓(4.17)-室津(4.19)-兵庫(4.20)-大阪(4.21)-京都(5.2)-大津(5.3)-彦根(5.5)-大垣(5.6)-名古屋(5.7)-岡崎(5.8)-吉田(5.10)-浜松(5.11)-掛川(5.12)-藤枝(5.15)-江尻(5.16)-三島(5.17)-小田原(5.18)-藤澤(5.19)-品川(5.20)-江戸(5.21)
復路	일본	品川(6.13)-藤澤(6.14)-小田原(6.15)-三島(6.16)-江尻(6.17)-藤枝(6.18)-掛川(6.19)-浜松(6.20)-吉田(6.21)-岡崎(6.22)-名古屋(6.23)-大垣(6.24)-彦根(6.25)-守山(6.26)-京都(6.27)-大阪(6.28)-兵庫(7.7)-室津(7.8)-牛窓(7.9)-韮浦(7.10)-蒲刈(7.11)-上關(7.13)-赤間關(7.15)-藍島(7.16)-壹岐島(7.17)-對馬島(7.18)
	국내	부산 도착(윤7.12)-부산 출발(윤7.14)……復命(윤7.30)

이처럼 1747년 통신사는 11월 28일에 조정을 하직한 뒤 사행길에 올라 이듬해 윤 7월 30일에 복명함으로써 약 10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게 된다.¹⁰⁾

하고 있다. 그런데 三宅英利는 먼저 출발한 馬鷹 호송인 5명을 합치면 477명으로 정식으로 475명이지만 실제로는 477명이 된다고 밝히고 있고(三宅英利 저·손승철 역,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실천, 1991, 361쪽), 松田甲은 三使와 堂上官 3인 등이 포함된 上上官 6명, 上官 49명, 中官 163명, 下官 260명 등 총 478명으로 보는(松田甲, 『李朝英祖時代 戊辰の信使一行』, 『日鮮史話』제4편, 조선총독부, 1930, 56-59쪽) 등 기록자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이봉환의 통신사행 참여와 활약

『雨念齋手書』를 남긴 이봉환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聖章이며 호는 雨念齋·濟庵이다. 1710년 體素齋 李春英의 서얼 후손으로 태어나 24세(1733)에 식년시 진사 2등 1위로 합격하였다.

洪景海의 『隨槎日錄』에 의하면 이봉환은 正使船에 소속된 제1 書記로 ‘水庫別檢’ 벼슬을 지낸 것으로 나타난다.¹¹⁾ 빙고별검은 얼음창고를 관리하는 종8품 관직으로 녹봉을 받지 못하던 雜職 無祿官이었다. 이처럼 서얼신분의 미미한 관원이던 그가 39세의 나이로 통신사 서기로 발탁된 데는 그의 문학적 재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통신사의 서기는 제술관과 함께 대체로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서얼신분이 맡았는데, 이는 1747년 통신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술관 朴敬行, 서기 柳近·李命啓 등이 한결같이 서얼신분이었다.¹²⁾

그의 칠언을시는 정밀하고 엄격하여 들어가는 글자 하나라도 구차하게 놓여진 것이 없었으니 근세의 절조라 하겠다.…입에 급히 올리면 산초 열매가 혀를 얼얼하게 하는 것 같고, 눈을 가리면 시름한 바람이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으니 결코 中和에 맞는 성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다. 그가 창시한 이 시체는 오직 그 자신만이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본받을 수가 없었다.¹³⁾

18세기 人物志로 평가되는 『一夢稿』의 저자 李圭象이 이봉환을 평한 대목이다. 이봉환의 시에 대한 평가는 ‘近世의 絶調’란 말에 압축되어 있

10) 曹命采, 『奉使日本時聞見錄』坤, 『聞見總錄』, <總論>. 都計臣等丁卯十一月二十八日辭朝 戊辰閏七月三十日復命 其間月數 準十朔矣.

11) 洪景海, 『隨槎日錄』, 『隨槎人員錄』, 書記水庫別檢李鳳煥.

12) 金敬숙, 『조선 후기 서얼문학 연구』, 소명출판, 2005, 468쪽.

13) 李奎象, 『并世才彥錄』, 『文苑錄』, <李鳳煥>. 詩之七律精刻 入裏一語不苟措 近世絶調…轉爲急口 則椒粒辣舌 遮眼則酸風射眸 決非中和之陶寫 鳳煥創是體 唯己能之 他人則畫虎不成.

다. 이봉환이 만들었다는 독창적인 詩體는 다른 아닌 ‘椒林體’를 일컫는 것으로, 고추의 맛이 얼얼한데 ‘얼얼’이란 글자의 발음이 서얼의 ‘蘖’과 같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¹⁴⁾ 따라서 초림체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사고가 간결하고 메마른 듯하면서도 매웠던 서얼문사들의 作詩 특성을 잘 보여주는 시체인 셈이다.

그런데 이봉환의 개성적인 시문체는 사행 이전에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초림체가 달리 ‘鳳煥體’로도 불렸다는 점이나, 이봉환이 1738년에 趙載浩·趙維鎭과 함께 梅花社를 결성한 데서¹⁵⁾ 엿볼 수 있다. 그 결과 그는 소위 ‘통신사행의 四文士’로 일컬어지는 서기에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이다.

통신사행에서의 그의 활약은 그가 사행록을 남기지 않은 데다, 『雨念齋詩稿』에도 수록하지 않아 자세히 살필 수는 없다.¹⁶⁾ 『奉使日本時間見錄』에도 4월 29일 大坂城에 묵고 있을 때, 한 일본인이 이전 3차 통신사(1682·1711·1719년)때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제술관과 서기로부터 받은 시를 모아 만든 5개의 족자를 바치자 거기에 <小序>를 지어 주었다는¹⁷⁾ 기

14) 李奎象, 같은 책, 『文苑錄』, <李命啓>. 命啓一帶人善文者 稱椒林八才士 椒之味烈烈 字意諺言與蘖音同.

15) 이후 1755년에는 蔡希範과 南玉이 참여하여 두 번째 梅花社를 결성했는데, 그들의 시문을 담은 『梅社五詠』이 단국대 퇴계기념도서관에 전한다.

16) 다만 『雨念齋詩稿』에는 이봉환이 1763년 통신사의 정사 徐命膺에게 바친 <送通信上使徐淡翁> 7언 율시 19수가 전한다. 이 시는 서명응이 <奉送通信正使徐公序>를 지은 이봉환에게 다시 送詩 짓기를 요청한 것에 응한 것(余既作序送公 公曰 不可以不詩 遂略述往東行程以獻)으로, 자신이 일본에 갔던 路程을 담아 읊은 것이기에 참조할 만하다. 이 送詩는 李鳳煥 外編, 『徐命膺通信正使惜別詩文』에 李命啓의 <奉送徐侍郎使日本之行序>와 趙鎭憲의 <贈別徐副學奉使日本>등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봉환은 이후 삼사가 바뀐 이후에도 그들에게 전별시를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南玉, 『日觀記』, 夏, 第5, 癸未年 7月 24日의 기록(以詩文贈者 太學士李公鼎輔…李聖章鳳煥)을 참조.

17)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乾, 戊辰年, 4月 29日. 大阪膳夫一倭 携二楨子 示製

록이 있을 뿐이다.

반면 일본에는 이봉환의 활약을 반영하는 자료들이 많은데, 먼저 시문창화의 모습은 靜岡의 淸見寺와 韃浦의 福禪寺 등에 지금도 오롯이 남아 있다.

청견사는 조선 후기 통신사 가운데 1617년 사행을 제외하고 江戸로 향했던 나머지 사행이 모두 거쳤던 東海道 굴지의 巨剎로¹⁸⁾, 여기에 <和上人>·<次贈忍師> 등 이봉환이 청견사 승려 忍上人에게 차운한 2편의 시가¹⁹⁾ 남아 있다. 忍上人은 청견사 11세 주지인 關板主忍을 일컫는 것으로, 그 스승인 제10세 性海惠丈이 주지로 있던 1748년은 물론 1763년 통신사 행까지 시문창화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²⁰⁾

그리고 1655년 통신사의 종사관 南龍翼이 洞庭湖와 岳陽樓에 빚낼 정도로²¹⁾ 그 경치가 빼어났던 福禪寺에는 당시의 藩主 阿部正福이 두루마리로 만들어 주지에게 바친 ‘韓客詞花’가 전한다. ‘한객사화’는 통신사 三使·제술관·서기와, 군관 洪景海·李吉儒 등 9인이 귀로인 7월 10일에 들러 지은 한시를 담은 것이다. 그 속에 이봉환의 <福禪寺夜坐>가 있는데, 이는 福禪寺의 누각인 對潮樓에 詩板으로 걸려 있기도 하다. 또 이 지역 1748년 통신사의 응접기록인 『萍交唱酬錄』에도 이봉환이 伊藤仁齋의 손자인 伊藤霞臺의 시에 차운한 <謹奉呈書記三君案下>·<奉酬霞臺瓊韻>

述書記曰 鄙人自父祖 世爲此役 壬戌辛卯己亥三行時 皆受製述書記之詩文 作爲家寶矣 因出示之 錦粧牙軸 卽五箇簇子 其慕悅之誠可嘉 故上房書記李鳳煥 作小序書贈之.

18) 한태문, 『淸見寺 所載 詩文에 반영된 韓日文化交流』, 『조선통신사연구』3호, 조선통신사학회, 2006, 128-129쪽.

19) 『세이켄지 소장 조선통신사 유물도록』,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2006, 54-59쪽.

20) 한태문, 앞의 논문, 136쪽.

21) 南龍翼, 『扶桑錄』上, 乙未年 8月 22日. 若論海路形勝 則當以爲第一 而可與洞庭爭雄矣. ; 8月 24日, <秋潭疊步城字韻至二十首牽率更答歷敘所過景物>. 若使夸娥移夢澤 也應爭較岳陽城.

등이 전하고 있다.²²⁾

이밖에 필담도 전한다. 이봉환은 일본 문인 山宮雪樓에게 여인이 染齒하는 것은 어떤 제도를 본뜬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雪樓는 染齒는 ‘烈女不更二夫’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게 물들이면 다시 다른 색으로 바꾸려고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다.²³⁾ 또 備州福山府講官 伊藤霞臺에게 伊藤仁齋의 『童子問』을 조선학자들이 칭송하고 있음을 밝히고 아울러 다른 저술이 있는지를 물어, 그로부터 『論語古義』·『孟子古義』·『中庸發揮』·『大學定本』·『語孟字義』를 기증받기도 한다.²⁴⁾

이처럼 1747년 통신사행에서 필담창화의 주역이었던 이봉환은 귀국 후 사행에서 드날린 文名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활발한 문학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곧 朴敬行·柳逅·李命啓 등 1747년 통신사행을 통하여 알게 된 서얼문사들과 어울려 소위 ‘椒林八才士’라 불리는 시 창작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 그룹의 시적 경향은 이후 李德懋·朴齊家·尹可基·柳得恭과 같은 후배들에게 확산되어 서얼들의 독특한 시 경향으로 인정받기에 이른다.²⁵⁾

또한 영의정 洪鳳漢이 ‘庶流 가운데 인재’로 이봉환을 천거함으로써²⁶⁾ 관직이 陽智縣監에 이르게 된다. 사도세자의 장인인 홍봉환은 이봉환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봉환의 시문집인 『雨念齋詩稿』에 홍

22) 福山市韜の浦歴史民俗資料館友の會, 『朝鮮通信使と福山藩・韜の津 その二』, 福山市韜の浦歴史民俗資料館活動推進協議會, 2003, 106-118쪽. 天理大 圖書館에는 伊藤輝祖에게 바친 <贈居益村主人伊藤氏敘>도 전한다.

23) 山宮先生, 『和韓筆談薰風編』上.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89쪽 재인용.

24) 『萍交唱和錄』 卷上. 福山市韜の浦歴史民俗資料館友の會, 『朝鮮通信使と福山藩・韜の津 その二』, 2003, 106-111쪽에서 재인용.

25) 안대회, 『서얼시인의 계보와 시의 사적 전개』, 『문학과 사회집단』(고전문학회 편, 집문당, 1995), 275-283쪽.

26) 『英祖實錄』 卷105, 41年 6月 18日. 領議政洪鳳漢所薦也 鳳漢又薦李鳳煥南玉成大中爲庶流中人才 請次第調用 上允之.

봉환의 시에 차운한 <與翼齋洪尙書拈韻>·<夏日過洪洗馬拈韻>와, 함께 지은 <與翼齋共賦> 등의 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봉환은 이처럼 통신사행에서 드날린 文名에 기인한 자부심과 벼슬살이에도 불구하고, 서얼이라는 신분적 질곡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먹은 마음 돌이켜 생각하니 절로 높건만 / 중년의 기구한 행적은 도리어 쓸쓸하기만 하네 / 문관으론 글이나 다듬는 기술 지닌 서기나 되고 / 무관으론 말타기로 수고로운 군관이나 될 뿐이니 回憶初心亦自高 中年崎跡轉牢騷 文爲書記雕蟲技 武作軍官躍馬勞 - 『雨念齋詩稿』, <出門>

이 시의 뒤를 이어 <發龍灣宿九連>·<入柵>·<白塔> 등 약 70여 편의 詩題 속에 등장하는 지명이 燕行使의 사행노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이봉환이 연행사행에 서기로 참여하면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²⁷⁾ 높은 이상과는 아랑곳없이 중년이 되어도 사행의 서기나 군관노릇을 못 면하는 서얼로서 삶의 한계를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 편지를 통한 고독과 두려움의 해소

조선의 선비들은 중국사행을 ‘사내의 意氣를 드높이고’ ‘시야를 넓히는’ 수학여행의 한 방편으로 여겼다.²⁸⁾ 반면 일본사행은 바다를 건너는 데다

27) 『雨念齋詩稿』·『雨念齋詩文抄』 외에 다른 문헌이 없어 구체적인 행적을 찾긴 어렵다. 하지만 통신사행에 같이 참여한 부사 南泰耆와 종사관 曹命采가 각각 1750년 參覈使와 1756년 謝恩兼三節年貢使로, 그리고 『徐命膺通信正使惜別詩文』을 편집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徐命膺 또한 1769년 三節年貢使로 燕行길에 올랐음을 고려할 때 이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이 연행길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역대 연행사 일람표는 임기중,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2, 12-29쪽 참조.

28) 전자는 金昌協, 후자는 金昌翁의 詩句로 모두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35, 『淸脾錄 4』, <農巖三淵慕中國>에서 따온 것이다. 이덕무는 이들이 도학과 문장으로 당대를

‘不俱戴天之 원수’ 또는 ‘야만의 나라’로 향하는 것으로 여겨 대체로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1443년 통신사 書狀官으로 물망에 오른 자가 風波를 꺼려 가지 않는 바람에 申叔舟로 내정되고, 1763년 통신사에 정사로 임명된 鄭尙淳이 5일 동안 노모를 핑계로 사행을 거부하다 김해에 유배된 사실들에서²⁹⁾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사행길에서 가족과 주고받는 편지는 고독과 두려움을 그나마 해소시키고, 나아가 자신과 가족을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행원의 기록은 사행길에서 편지가 지나는 값어치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가) 安伯倫이 병으로 뒤에 떨어졌다가 이제야 도착했다. 이편에 일행들은 모두 집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다. 그런데 내 집에서만 편지가 없으니 서운한 느낌을 참으로 견딜 수 없다. 옛말에, ‘집 편지가 萬金을 당한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김지남, 『東槎日錄』, 1682. 5.22.

(나) 서울에서 온 편지를 받았는데 7월 이후에는 첫 소식이었다. 놀랄 만큼 극도로 반가운 끝에 도리어 무슨 기별인지 겁이 났다. 피봉을 떼기가 급하여 손으로 뿔 거름이 없이 이빨로 물어뜯었더니, 양친 계신 곳에서 세 번의 평안하다는 편지와 서울 집의 편지가 아울러 왔다. 셋째 번의 편지는 9월에 낸 것인데 온 집안이 평안하다 하니 기뻐서 미칠 것 같았다. -남용익, 『扶桑錄』, 1655. 11.6.

글(가)는 1682년 통신사행의 漢學역관 김지남이 渡日을 위해 부산으로 향하는 도중 경주에 머물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아직 일본으로 떠난

대표하면서도 끊임없이 중국을 사모한 것을 두고 ‘예로부터 많은 책을 읽고 뜻이 넓어진 분들은 반드시 이런 생각을 갖는 모양이다(終古讀書萬卷 胸襟恢蕩者 必具此想)’라고 평하고 있다.

29) 전자는 李承召, <高靈府院君申叔舟文忠公墓碑銘并書>(『續東文選』 권20, 「碑銘」), 후자는 『英祖實錄』 卷102, 39年 7月 13日의 기록.

것도 아니고 국내 노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집안의 편지를 받지 못한 섭섭함에 ‘집 편지가 萬金과 맞먹는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글(내)는 1655년 통신사행의 종사관 남용익이 歸路인 일본 藤枝에서 무려 4개월 만에 집안의 편지를 접한 심정을 담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놀랄 만큼 극도로 반가운 끝에 도리어 무슨 기별인지 겁이 날 정도”라는 표현에서 통신사행에서 가족과의 편지는 ‘소식의 전달’이라는 단순한 역할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봉환에게 있어 편지쓰기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잦은 편지쓰기는 물론이고, 편지마다 대부분 자신이 부친 편지를 잘 받아 보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행록에 등장하는 편지의 전달은 크게 국내 노정과 일본 노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국내 노정의 경우에는 주로 배웅을 나온 사행원의 아들이나 하인, 驛吏나 파발꾼 등 인편을 통해 전달되는데, 일본 노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횡수도 빈번한 편이다. 이봉환의 <雨念齋手書> 역시 총 19편의 편지 가운데 15편이 서울-부산간 국내노정에서 부친 편지이다.

반면 일본 노정에서는 국내 노정에 비해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ㄷ) 일본 가온 후는 진서 편지는 못주어 보낸다 하오니 미리 기별하오니
혹 친고의 편지라도 드려보내지 마옵쇼셔.-<雨念齋手書>, 1747.11.29.³⁰⁾

(ㄹ) 문득 수행하는 下卒의 편지를 읽는 소리가 들려 귀를 기울여 들으니,
고향에서 온 편지를 소리 내어 읽고 있는 것이었다.³¹⁾

30) 앞으로 <雨念齋手書>에 수록된 통신사행 관련 19편의 편지는 발신일을 기준으로 순서를 매겨 ‘<手書, 1>’ 등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전체 수록편지의 순서는 다음 章에 정리되어 있는 도표를 참조.

31) 洪禹載, 『東槎錄』, 壬戌年 9月 21日. 忽聞從卒看書之聲 側耳聽之 吟哦其鄉書.

글(대)는 이봉환이 11월 29일 대궐을 떠나 龍仁으로 향하는 길에 어머니께 부친 편지이고, 글(태)는 1682년 통신사행에서 歸路인 岡崎에 머물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글(태)를 통해 일단 통신사행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는 眞書 곧 한문 편지가 용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문이 당시 동아시아 공동문어였고 통신사행이 외교사행이었던 까닭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의 유출이나, 그로 인해 양국간에 야기될 수 있는 오해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한글편지는 글(태)의 기록에서도 확인되듯, 渡日 기간 동안 한글을 이는 사행원과 가족사이의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매개체가 되었다. 다만 일본노정의 경우 부산으로 향하는 對馬島 무역선인 歲遣船이나 狀啓를 전하던 飛船 등을 통해 편지를 주고 받다 보니, 국내노정에 비해 그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처럼 <雨念齋手書> 통신사행 관련 편지는 1747년 일본 9대 장군인 徳川家重의 습직을 축하하는 통신사행에 당시 국내에서 문명을 떨치던 이봉환이 서기로 참여하여 어머니와 한글편지를 주고 받음으로써 산출된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3. <雨念齋手書>의 내용적 특징

1)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

<雨念齋手書>에는 이봉환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곳곳에 묻어나는데, 먼저 빈번한 편지쓰기가 그 예이다.

구분	送信 일자	送信 장소	내 용
1	1747. 11.29	向 龍仁	아침에 부친 편지의 도착 여부 / 茶 한 상자 부침 / 渡日 후는 한문 편지 주고받을 수 없음 / 띠 하나 부쳐주길 요청
2	11.30	竹山	두 번 편지의 도착 여부 / 어제 오늘 내일의 노정 소개 / 봉급에 대한 처리 당부
3	12.09	向 義城	안기역 주인편에 부친 편지 도착 여부 / 어제 오늘의 노정 소개 / 바뀐 벼슬관청에 대한 궁금
4	12.12	永川	12월 2일 답장 이후 소식 없어 답답함 / 영천에서의 전별연과 이후의 노정 소개 / 울산 숙박시 사당 참배 및 친척 방문 예정
5	12.24	釜山	편지 도착 여부 / 1월 9일 바람 불면 발선 가능
6	12.25	釜山	간략한 안부 편지
7	1748. 01.02	釜山	어머니 편지에 대한 답장 / 수일내 발선 소식 알림
8	01.03	釜山	편지 도착 여부 / 수교 작은 아버지댁 안부 / 사행 기간이 오래니 마음 편안히 먹고 기다리시길 당부
9	01.09	釜山	해신제 소개 / 도장 새긴 돌 5개 마련하여 정사 댁에 보낼 것을 요청
10	01.12	釜山	어머니 편지에 대한 답장 / 발선 지체에 대한 민망함 / 도장 돌 재차 부탁
11	01.24	釜山	문안 / 발선이 다가옴
12	01.26	釜山	문안 / 발선이 다가옴 / 벼슬관청에 대한 궁금함
13	02.09	釜山	심원성의 집에 가는 편지 전하여 줄 것 요청 / 서울친구들에게 보낼 자가 많아 편지를 못 보냄
14	02.13	釜山	발선 연기로 2월 4일에 부친 어머니 편지를 받은 기쁨 / 모든 편지는 正使댁에 맡길 것 / 용인아이 이름은 海聞으로 작명할 것
15	02.16	向 對馬島	8일 柳近의 아들 편에 편지 부침 / 9일 승선하여 對馬島로 향함 / 여정은 험하지만 걱정하지 말 것 / 청백한 사행 다짐
16	02.22	對馬島 鰐浦	龍仁 아이 병에 심회 굳건히 할 것 당부 / 副使船의 화제로 예물을 태운 사연과 귀국이 늦어질 것 알림
17	02.26	對馬島 府中	23일 對馬島 府中에 도착 / 부사선의 火患으로 귀환의 지체가 불가피함 / 부사선에 대한 유언비어 믿지 말길 당부
18	07.19	對馬島	壹岐島에서 5월 5일과 5월 23일에 부친 어머니의 편지를 받음 / 당초 예상보다 빨리 7월 그믐쯤 부산 도착할 예정
19	윤07.20	大邱	26일쯤 利川으로 갈 예정 / 상봉에 대한 설렘

위의 도표에서 보듯 이봉환은 일본 본토에서의 노정을 제외하고, 국내 노정과 왕래가 빈번했던 對馬島까지의 노정에서는 기회가 나면 자주 어머니께 편지를 부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다음의 예문들은 이봉환이 어머니께 부친 편지가 <雨念齋手書>에 수록된 19편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 어제 편지 쓰오대-<手書, 9>

(나) 초팔일 뉴봉사 자제 가압거늘 상셔 하여사오대 -<手書, 14>

글(가)는 부산에 체류하던 1월 9일에 어머니께 부친 편지이고, 글(나)는 對馬島에 도착한 2월 13일에 부친 편지이다. 그런데 글(가)에 언급된 ‘어제 편지’ 곧 1월 8일의 편지와, 글(나)에 언급된 柳奉事, 곧 서기 柳近의 자제 편에 보낸 ‘2월 8일의 편지’는 한결같이 <雨念齋手書>에 빠져 있다. 그래서인지 이봉환은 이들 편지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데 대한 의구심을 편지에 드러내기도 한다.

상사택의 수일 도리로나 살암 보나여 보압쇼셔. 이전 편지 혹 못간거시나 잇난가 차차 보압쇼셔. 니은진 직동과 매동의 니세득의게 편지를 안동 영천 두고올쎄 주어삽더니 이편지도 못갓던가시브외다. - <手書, 9>

정사 홍계희 댁에 도리로나마 찾아뵈면서 자신이 부친 편지 가운데 빠진 편지나 없는지, 아울러 안동과 영천에서 이은진과 이세득에게 부친 편지도 같이 찾아 봐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3일후에 부친 편지에는 집으로부터의 편지가 다 왔으니 상사택에 편지 전하지 않겠다는 말을 거두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이봉환의 어머니 역시 제때 편지가 전해지지 않는 것을 두고 앞으로 상사택 편으로 편지를 부치지 않으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봉환의 효성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ㄷ) 차담 한 행담 너허 봉표하여 이찬이 가는데 주어보내압나이다. - <手書, 1>

(ㄹ) 자난 년하여 무사이 잇사오대 심회 착낭치 못하오니 엇지 하오리잇가. 얼마하연 왕반하을 것 아니니 관회하여 지내압시고 부대부대 병환나지 마압쇼셔. - <手書, 8>

바쁘고 힘든 사행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봉환은 국내노정에서는 틈틈이 편지와 함께 어머니가 드실 차를 마련하여 함께 부치고 있다. 게다가 글(태)에서 보듯 자신은 병 없이 무사히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몸 도섭하옵서 병환 엇시 겨압쇼셔”(〈手書, 1〉)·“심회를 관억하여 안령히 지내압쇼셔”(〈手書, 2〉)·“내내 관회하오서 평안하심 축슈하압나이다”(〈手書, 10〉) 등에서 보듯 어머니의 건강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2) 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필요한 물건의 요청

가족을 하직하고 사행길에 오른 이봉환이 어머니에 대한 안부 및 편지의 수신 여부에 대한 확인 외에 가장 먼저 관심을 둔 것은 자신이 補任될 새로운 관청과 봉급의 처리였다.

벼살을 응당 상환하여실거시니 장원서 아니면 네빈의 다홀거시니 그전의 향녹구차삭거촉을 자셔이 찾고 공석 백여넙히 이시니 채상의게 이덕이나 보내여 지원하여 드려오거나 혹 나모로 밧고와 가조오면 죠홀듯 하오이다. - <手書, 2>

자신이 보임될 새로운 관청이 掌苑署나 禮賓寺가 될 것 같다고 예견하면서, 그 전에 學錄에게 주던 구채싯[車馬費]과 거촉싯[炬燭費]을 자세히 찾아보고, 빈 거적 100여 장도 있으니 천천히 들여오거나 나무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³²⁾

이 편지만 놓고 보면 앞서 『隨槎日錄』의 기록과 달리 이봉환은 성균관에서 교관을 보좌하던 정9품 벼슬인 學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록은 『經國大典』에 의하면 1년 동안 현미 8섬, 좁쌀 1섬, 콩 3섬, 밀 1섬, 베 3필, 종이돈 1장을 녹봉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³²⁾ 사신으로 파견될 경우 공무를 보지 않아도 녹봉을 내주는 것이 관례였기에, 이를 잘 챙겨 생계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는 家長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다.

그의 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다음의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농인 아해 일흠으란 해문이라 지으라 하압쇼셔. 해상의셔 드러사오니 그리 하면 죠홀듯 하오이다. -〈手書, 14〉

이봉환은 渡海를 목전에 둔 부산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접한 듯하다. 그것은 “어제 농인읍내 하쳐의셔 자고 처가의 잠간 다녀”라는 〈手書, 2〉의 내용에서, 처가가 용인에 있고 아내는 해산을 위해 처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다위에서 아들의 출생소식을 접했으니 아들 이름도 ‘海聞’이라 지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러낸다. 한편 이봉환은 편지를 통해 사행에 필요한 물건을 요청하기도 한다.

(가) 띄가 들이 적사오니 그돈의 모단 띄 한나만 장만하여 두엇다가 아무 신편의 부쳐보내압쇼셔. -〈手書, 1〉

(나) 승내골 니셔방과 서셔방몽닌의게 사람 년하여 보내여 도서 삭긴돌 다삿개를 차자 부대부대 승선전의 밋치 보내압쇼셔. 슈교 종제다려 아모쵸록 서셔방몽닌이를 차자보고 도서돌 사긴것 다숫개를 차자 달나하여 소음의 싸고 보회 가든히 봉하여 상사댁으로 수이 보내게 하압쇼셔. -〈手書, 9〉

32) 〈手書, 3〉과 〈手書, 12〉에서도 “벼슬은 웅당 상환하여실들 하오니 무슨 마을노 가삼는지 몰나 답답하오이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748년 1월 26일까지는 새로운 관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듯하다.

33) 윤국일 역주, 『譯註 經國大典』, 卷2 「戶典」, 여강, 2000, 92-97쪽.

글 (가)는 용도가 분명치 않지만 띠가 부족하니 중국 羽緞의 한가지인 毛緞을 하나 장만 하였다가 편지 보낼 때 부치라는 것이고, 글 (나)는 圖署 새긴 돌 5개를 찾아 正使댁에 보내어 배에 오르기 전에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이봉환은 글 (나)에 이어 <手書, 10>에서도 圖署의 송부를 다시 재촉하는 등, 書畫에 찍는 일정한 격식을 갖춘 도장인 圖署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인다.

통신사행에서 도장은 각종 공문서는 물론 公私의 편지 등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확인하는 가장 요긴한 물건이었다. 게다가 도장은 양국 문인들의 交遊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곧 시문창화 현장에서의 마무리는 물론 아예 도장 자체를 주고 받기도 했다. 1763년 사행의 경우 岡山藩의 泮宮文學인 和田邵는 자신의 친구인 中三實이 75개의 도장을 새겨 만든 『印譜』에 서문을 지어줄 것을 제술관 南玉에게 부탁한다.³⁴⁾ 또 귀로의 大坂에서는 大坂문인 福原承明과 木村蒹葭堂이 통신사 일행 15명의 성명과 字號를 새긴 도장과 함께 『東華名公印譜』를 첨부하여 선물하기도 한다.³⁵⁾

이처럼 통신사행에서 도장은 공사적으로 긴요한 물건으로 간주되었기에 이봉환은 맡겨 둔 도장을 빨리 찾아 배에 오르기 전 부칠 것을 애타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3) 사행 참여의 자부심과 청렴한 사행의 기대

앞서 살폈듯이 통신사행은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바닷길 노정이 앞에

34) 南玉, 『日觀記』, 1764년 1월 13일. 和田乞其友中三實印譜序 三實字子樸 印凡七十有五 各體備之 可知其深於印學者 留其譜而許之.

35) 이원식, 앞의 책, 245-248쪽. 이는 成大中の 『日本錄』, 癸未年 5월 15일의 기록과, 金仁謙의 『日東壯遊歌』와 南玉의 『日觀記』, 癸未年 4월 4일부터 6일까지의 기록에도 보인다. 成大中과 木村蒹葭堂과의 交遊에 대한 연구는 高橋博巳, 『通信使・北學派・蒹葭堂』, 『조선통신사연구』 4호(조선통신사학회, 2007), 124-144쪽 참조.

펼쳐져 있어 누구나 꺼리는 여행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통신사행은 儒家 선비로서 “시 삼백 편을 외우되 정사를 맡겨 주어도 다스리지 못하고, 사방의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왕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비록 많이 원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³⁶⁾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특히 이봉환은 제술관과 함께 소위 통신사행의 四文士로 손꼽히는 書記의 신분으로 참여한 것이기에 그 자부심은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풍세 순하고 대마도 건난후 슈로이셔도 다 이백니식 삼백니식 순하온 길히
라 하오니 슈로 녹로 이천니의 여라달 된다 하오니 심난하오대 남이라 가오리
잇가. 관겨치 아니하올거시니 넘너마압쇼셔.-<手書, 15>

對馬島를 향하면서 對馬島는 물론, 이후 펼쳐질 머나먼 바닷길도 風勢가 순하여 결코 험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편지이다. 이는 “물결 위를 넘을 즈음에는 하늘로 오르듯이 올라갔다가 땅으로 들어가듯 내려가고, 전후 좌우로 뒤흔들고 까불어대어 잠시라도 자리에 붙어 있으려 해도 끝내 되지 않았다. … 배 안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다 자빠져서 얼굴엔 산 사람의 빛이 없고 불러도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³⁷⁾는 조명채의 기록과 상반된 내용이다. 어머니께 근심을 안기지 않으려는 이봉환의 효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록 “수로와 육로를 합쳐 약 2천리에 여러 달이 걸린다 하여 심란한 마음이 일긴 하지만, 자신이 아니면 누가 가겠느냐?”고 반문하는 대목에선, 오히려 文才를 인정받은 자부심과 야만의 나라를 성인의

36) 『論語』 卷13, 『子路』. 誦詩三百 授之與政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亦奚以爲.

37) 曹命采, 앞의 책, 2月 16日. 踰越波頭之際 則上若升于天 下若入于地 而前後左右之搖蕩簸揚 雖欲一刻帖席 終不可得…環顧船中諸人 舉皆僵倒 面無人色 呼之無一應者.

가르침으로 교화시키려는 儒者의 소명의식도 잘 드러난다.

나아가 이봉환은 사행 참여의 자부심과 함께, 기존 사행에서 지적되었던 병폐를 일소하고 깨끗한 사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드러낸다.

이번 사행은 각별이 청백하여 이국의 꺼리게 하려 하얏고 매마 일절을 일죄로 마련하오니 그리 되게 되면 작히 기특하오리잇가. 피인의 상사하나 은을 일병 바리고 올법잇다 하오니 범사 그리하게 되면 다행할가 시부오이다. <手書, 15>

이봉환은 먼저 이번 사행이 특히 내세우는 ‘청렴’으로 일본인들을 두려 위하게 만들고, 사행 때마다 논란이 되곤 했던 潛商, 곧 밀무역도 단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봉환이 潛商을 거론한 것은 바로 이전 1719년 통신사행에서 역관 權興式이 잠상의 죄로 음독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³⁸⁾

나아가 일본측이 비록 관례대로 銀을 선물하겠지만 받지 않고 바다에 버리고 오는 법도 있으니, 만약 그렇게 되면 청렴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도 가져본다. ‘바다에 버리고 오는 법’을 일컬은 것 역시, 1636년 통신사가 일본 關白으로부터 받은 황금을 新居의 ‘今切河’에 던져버린 사건을 떠올린 것이다.

關白에게 국서를 전달한 1636년 사행은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쌀과 반찬의 여분을 그대로 두고 귀로에 오른다. 그런데 幕府는 이들이 이미 통신사 몫으로 주어진 것이라 하여 황금 170錠으로 바꾸어 다시 통신사에게 안긴다. 통신사는 나누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만 돌려주려 해도 對馬島主가 중간에 착복할 수가 있어 최선의 해결책으로 황금을 강에 던져 物慾 없음을

38) 申維翰, 『海游錄』, 己亥年 12月 28日. 譯官權興式 飲藥自殺 式以蔘貨犯禁 在法當誅 使臣以境上處斬之意 既封啓 渠亦自知而先死.

과시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 ‘今切河’는 ‘金絶河’, 또는 ‘投金浦’로도 불려 통신사의 청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사행 때마다 회자되기에 이른 것이다.³⁹⁾

하지만 이봉환의 바램과 달리 정작 다른 문헌 기록들에 의하면 1747년 사행은 오히려 이전 사행보다 심한 병폐를 드러내고 있음이 눈에 띈다.

(가) 홍계희 등이 부산에서 4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70고을에서 돌려가며 이들을 지공하느라 온 도내가 말할 수 없이 피폐되었고 모든 고을이 거의 몇 해 동안 회복되지 못하였다.⁴⁰⁾

(나) 우리나라의 제도는 번번이 중화를 본받고 있는데도 이제 政刑과 法令이 도리어 오랑캐만도 못하였다. 그리하여 통신사가 가서 오랑캐들에게 위엄을 보이지 못한 것은 물론, 사적으로 뇌물을 받으면서도 사양할 줄을 몰랐으니, 수모를 받는 것이 그칠 기한이 없게 되었다.⁴¹⁾

1747년 통신사의 귀환 후 史官들이 내린 평가들이다. 글(가)는 正使가 능히 제어하지 못해 일행들이 방자한 행동과 횡포를 서슴지 않은 데다 지나친 사행 접대로 부산 인근 고을의 경제가 피폐해졌음을, (나)는 통신사가 뇌물을 사양하지 않아 앞으로 일본측으로부터 수모를 받게 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글(나)에 언급된 뇌물이란 副使船 全燒에 대한 禮로 關白이 마른 해삼 10상자와 倭布 3백필을 보낸 것을 받고, 귀로에도 역시 국법으로 금하는 물건인 彩綾緞 2백필을 답례품으로 받아온 것을 말한다.

39) 이에 대해서는 황호, 『東槎錄』, 丁丑年 1月 10日의 기록과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편,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3』, 한울, 2009, 37-39쪽을 참조.

40) 『英祖實錄』 卷68, 英祖 24年 윤7月 30日. 啓禧等至釜山留四朔 七十州輪遞支供一道糜爛 列邑殆數歲不復.

41) 『英祖實錄』 卷68, 英祖 24年 윤7月 30日. 吾東制度 動法中華 而今則政刑法令反不如蠻 信使一往 不能見憚於蠻夷 受私賂而不知辭焉 來侮無窮期矣.

그런데 조정 역시 전자의 물건은 동래부에 주어 불시의 수요에 대비케 하고, 후자의 물건은 검은 물을 들여 군병의 전투복을 만드는데 사용키로 결정해버린다. 사정이 이러하자 史官은 “조정의 의논이 이를 물리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여분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 했으니,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⁴²⁾라며 개탄하기에 이른다.

게다가 『奉使日本時間見錄』은 귀로인 大坂에서 關白으로부터 받은 銀子和 비단을 나누어주자 “일행들이 모두 시끄럽게 떠들고 눈을 희번덕거리기를 마치 주린 백성들이 宣惠廳의 發賣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였다”⁴³⁾고 적고 있다. 결국 ‘投金’을 통해 無慾之心을 드러내려던 이봉환의 원래 바람은 三使臣에 의해 무참히 꺾이어 실천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4) 사행체험의 특이사항에 대한 전달 의지

외교적 업무가 중심이 되는 사행의 특성상,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는 요건 중심의 짧은 편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봉환의 편지는 사행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머니께 자세히 전달 하려는 태도를 견지한다.

오늘은 네사날 아흐로서 잔치하여 보내난 날이기여 감새 나와 도양각이란 집의 대풍뉴하고 삼사신 일행 청하여 놀고 내일 경주로 가오니 사나흘 사이 울산 드러가 또 잔치하고 부산 다달을거시니 점점 아모라탄 말이 나지 아니하 오이다. -〈手書, 4〉

42) 『英祖實錄』 卷68, 英祖 24年 8月 5日. 廟議不但不却而已 反以羨不足 其可曰國有人乎.

43)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 戊辰年 7月 3日. 合三房員役以下 分給銀子 絹錦等物 一行擾擾 衆目睽睽 若飢民之待惠廳發賣者然 何足責也.

서울로부터 무려 13일만에 630리⁴⁴⁾ 지나 도착한 永川에서 쓴 편지로, 사행의 주된 일정인 ‘네사(禮謝)’ 곧 ‘餞別宴’에 대해 적고 있다. 영천은 사행 노정의 경유지이자 통신사 사행원의 2차 집결지로 사행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 등 사행 관련 자원의 제공은 물론, 특히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餞別宴인 賜宴이 개최되던 장소였다.⁴⁵⁾

이 賜宴은 이봉환이 “감새 나와 도양각이란 집의 대풍류하고 삼사신 일행 청하여 놓고”라고 적고 있듯, 경상감사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던 朝陽閣에 三使臣과 四文士를 초청하여 베푼 큰 잔치였다. 인근 9郡이 준비한 이 잔치는 樂工이 연주하는 풍악은 물론 기생의 춤과, 조양각 앞 남천 들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馬上才 공연까지 어우러져 지역민에게 축제처럼 향유되기도 하였다.⁴⁶⁾

이봉환은 ‘조양각’·‘감사’·‘대풍류’·‘잔치’라는 용어를 통해 왕명을 받은 사행에 참여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한편으로,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는 의도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주-울산-부산 등 앞으로의 노정을 거론하면서 특히 울산에서의 ‘잔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餞別宴과 함께 통신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儀禮가 海神祭인데, 이봉환은 이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언급한다.

44) 이봉환은 “어제 영천 와 자오니 서울서난 **녹백삼십**니 되오니”(〈手書, 4〉)라 적고 있지만, 이는 誤記인듯 하다. 왜냐하면 洪景海의 『隨槎日錄』과 1763년 통신사 제술관 南玉의 『日觀記』에는 각각 770리와 790리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사행록들도 대부분 이들 기록과 가깝기 때문이다.

45) 한태문, 『조선시대 통신사와 영천』, 『배달말』 46집, 배달말학회, 2010, 116-125쪽.

46) 이는 1763년 통신사 서기 元重舉가 “안주를 팔고 떡을 파는 사람들 또한 때를 만났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잡화를 파는 무리들이 시내와 들에 꾸러미를 나누어 놓으니 대체로 좋은 구경거리였다.”(『乘槎錄』 8월 16일)고 적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해신제를 부산압 오리허 영가대란 데 가 지내오난대 전사관 겸 대축을 하여 동일토록 제물 차려 삼경의 진설하여 사경의 지내와 제문지어 사신이 모다 대해지신위관 아페 독축하고 오경의 자와 다른 제관 대리고 자근배 타고 폐백과 양식 각 한그릇 가지고 제문 껴 대해시에 가 더지고 오오니 심사도 조치 아니코 분요하여 겨우 와삽나이다. -〈手書, 9〉

해신제를 永嘉臺에서 지내되 자신은 典祀官과 大祝을 겸했고, 3경에 제물을 진설하고 4경에 제사를 지냈으며 5경에 자신과 다른 제관들이 작은 배를 타고 폐백과 양식 및 제문을 던지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해신제는 渡海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 사행원들이 부산의 영가대에서 龍을 해신으로 상징하고, 이에 祭儀를 베풀으로써 안전한 항해를 축원했던 對日사행의 대표적인 의례 중 하나였다.⁴⁷⁾

그런데 이봉환의 편지에는 전후 통신사행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곧 해신제에서 서기인 자신이 전사관과 대축을 겸했다고 밝힌 점이다. 보통 통신사행의 해신제에서 전사관과 대축을 맡은 이는 製述官이었다. 이전 사행인 1719년 통신사행에서 祭文의 창작은 물론 撰祝과 讀祝으로 典祀官을 겸한 이가 제술관 신유한이었고⁴⁸⁾, 다음 사행인 1763년 통신사행에서 제문의 창작과 大祝과 典祀官을 겸한 이도 제술관 南玉이었다. 이봉환과 같은 서기는 대체로 執禮·齋郎·奉爐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봉환은 제술관 朴敬行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게다가 洪景海의 『隨槎日錄』에는 해신제문도 지은 것으로⁴⁹⁾ 나타난다.

47) 영가대 해신제에 관하여는 한태문, 『朝鮮後期 對日使行과 永嘉臺 海神祭』, 『통신사, 한·일 교류의 길을 가다』(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경성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03) 27-54쪽 참조.

48) 申維翰, 『海游錄』, 己亥年 6月 1日의 기록(撰祝典祀等事 皆製述官所管云)과, 6月 6日의 기록(余以撰祝讀祝 兼典祀官) 참조.

49) 洪景海, 『隨槎日錄』, 戊辰年 1月 9日. 使臣曉行海神祭於永嘉臺 舊例也 行中人皆

이처럼 1747년 통신사행에서 이봉환이 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술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빼어난 文名을 바탕으로 한 이봉환의 입지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한편, 이봉환은 어머니에게 통신사행의 공식적인 의례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전하려는 태도를 유지한다.

내일 또 발선하여 가려하옵더니 의외에 부사 배에서 불나 인삼과 네단을 다 태우고 부사일선은 못독 다 회신이 되고 사람 둘히 죽고 부사일행 행장의 복을 몰수히 업세지오니 소견히 참혹하온 밋기 인삼 칠십근을 다 태오니 피인의 네물 줄거시 업세지오니 사행의 대새 낫사오니 전두의 약간 일월이나 귀기 지체하올거시니 고히한 변과올소이다. 상사 일행과 종사관일행이 다 무사하오니 그런 천행이 어이 잇사오리잇가-〈手書, 16〉

對馬島의 첫 기착지인 鰐浦에서 2월 21일에 발생한 副使船 全燒사건을 담고 있다. 逆風으로 무려 5일이나 머물 수밖에 없었던 악포에서 깊은 밤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좌수영 使令과 창원 출신 樂工 등 2명이 죽고, 10여 명이 火傷을 입었으며(그 중 1명이 나중에 죽음), 禮單인 인삼 70근과 白木綿 20필, 芙蓉香 310枝까지⁵⁰⁾ 불에 타 버린다. 게다가 자신들에 대한 문책이 뒤따를 것을 염려하여 이를 숨기려는 對馬島 都船主 私守京과의 갈등은 물론, 예단 인삼의 보충을 둘러싼 국내의 의심스런 눈초리도 감내해야 했다. 이는 다음의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삿배 火환후의 장계 년하여 가오니 서울은 응당 상업슨 소동하는 거즌말이 만사올거시니 브대 믿지 마옵시고 넘너마옵쇼셔. 이천니밋기 일이 실상으로 전하여 가지 못하올거시매 이리 알외압나이다.-〈手書, 17〉

參 祭文聖章所撰.

50) 『通信使牒錄』第11冊, 「副使舡到鰐浦失火日用雜物一不得出使令格軍延燒抵書對馬島牒本上送」.

이미 禮單夢의 보충 문제를 두고 조정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당시 사신들이 일부러 불을 질러 조정을 속였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었다.⁵¹⁾ 이봉환은 어머니께 副使船 화재에 대한 헛소문이 서울에 떠돌더라도 이천리 밖의 일이 실상으로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절대 그대로 믿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4. 마무리

이상으로 이봉환의 <雨念齋手書> 가운데 통신사행 관련 편지의 형성 배경과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雨念齋手書> 통신사행 관련 편지는 1747년 일본 9대 장군인 德川家重의 습직을 축하하는 통신사행에 당시 국내에서 문명을 떨치던 이봉환이 서기로 참여하여 어머니와 한글편지를 주고 받음으로써 산출된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 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필요한 물건의 요청, 사행 참여의 자부심과 청렴한 사행의 기대, 그리고 사행체험의 특이사항에 대한 전달 의지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흔히 1747년 통신사는 조일 양국 모두 이전 사행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문화유산인 <槎路勝區圖>와 <朝鮮人來朝覺備前御馳走船行列>이 산출된 사행으로 알려져 있다. 곧 전자는 화가 李聖麟이 부산으로부터 江戸까지의 外海·內海의 기항지는 물론 육로의 도시 경관을 파노라마 풍으로 그린 것으로 근대 일본을 외국인이 밖에서 보고 묘사한 귀중한 기록회

51) 禮單夢 보충에 대한 논의는 『英祖實錄』 卷67, 英祖24年 3月 1·2일의 기록을, 소문에 대한 것은 윤7月 30日의 기록(夢幣餽資 更爲備送 國儲爲之蕩然 或曰 舟中之火 乃故繼而欺瞞朝廷云)을 참조.

화⁵²⁾로 평가된다. 그리고 후자 역시 일본의 御用화가들에 의해 제작된 정형화된 通信使船團圖나 행렬도와 달리, 지역의 서민화가가 통신사선단을 유머러스하게 그린 유일한 그림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1747년 통신사행이 남긴 특이한 문화유산의 항목에 <雨念齋手書>가 자리매김을 해도 좋을 듯하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살핀 것처럼 <雨念齋手書>가 통신사행에 참여한 사행원이 남긴 현존 유일의 한글 편지모음으로, 이를 통해 당대 사행원들의 관심사는 물론 가족간에 오가는 사연들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52) 辛基秀·仲尾宏 편, 『大系 朝鮮通信使』 권6, 戊辰·延享度, 明石書店, 7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曹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録』

洪景海, 『隨槎日録』

『同文彙考』

李秉岐 편주, 『近朝內簡選』, 國際文化館, 1947, 37-61쪽.

2. 논문

高橋博已, 「通信使・北學派・兼葭堂」, 『조선통신사연구』 4호(조선통신사학회, 2007), 124-144쪽.

松田甲, 「李朝英祖時代 戊辰の信使一行」, 『日鮮史話』제4편, 조선총독부, 1930, 56-59쪽.

백두현, 「한글 편지에 나타난 조선통신사의 노정(路程)」, 『선비문화』5호, 남명학연구원, 2005, 65-72쪽.

안대회, 「서얼시인의 계보와 시의 사적 전개」, 『문학과 사회집단』(고전문학회 편, 집문당, 1995), 275-283쪽.

한태문, 「朝鮮後期 對日使行과 永嘉臺 海神祭」, 『통신사, 한·일 교류의 길을 가다』(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경성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03) 27-54쪽.

한태문, 「淸見寺 所載 詩文에 반영된 韓日文化交流」, 『조선통신사연구』3호, 조선통신사학회, 2006, 128-129쪽.

3. 단행본

福山市 韜の浦歴史民俗資料館友の會, 『朝鮮通信使と福山藩・韜の津 その二』, 2003, 106-111쪽.

三宅英利 저·손승철 역,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실천, 1991, 361쪽.

辛基秀·仲尾宏 편, 『大系 朝鮮通信使』 권6, 戊辰·延享度, 明石書店, 7쪽.

李奎象, 『并世才彥錄』

김경숙, 『조선 후기 서얼문학 연구』, 소명출판, 2005, 468쪽.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89쪽.

임기중, 『연행록 연구』, 일지사, 2002, 12-29쪽.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편,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3』, 한울, 2009, 37-39쪽.

Abstract

A Study on the letters of TongShinSa. in WooNyeomJaeSooSeo

Han, Tai-moon

The WooNyeomJaeSooSeo(雨念齋手書) is a collection of Bong-Hwan Lee's letters written in Hangul and included in the "KeunJoNaeGanSeon(近朝內簡選)" edited by Byeong-Ki Lee. It consists of 25 letters: 19 letters sent to Bong-Hwan Lee's mother and 6 letters sent to his wife.

The above 19 letters are related to Bong-Hwan Lee's participation in TongShinSa. In 1747, Bong-Hwan Lee, who made his mark by writing poetry and prose in Korea, as a clerk participated in TongShinSa, which celebrated Ieshige Dokugawa's succession of shogun(將軍). Lee frequently exchanged Hangul letters with his mother which inquired after each other while fulfilling his duties in TongShinSa. In particular, the letters which he exchanged with his family made lesson his loneliness and fear and played a role of the only link between his family and him, in the dispatched diplomatic delegation where his life and death could not be predicted. The letters related to TongShinSa in the WooNyeomJaeSooSeo were formed as above.

The TongShinSa-related letters in the WooNyeomJaeSooSeo contains the followings: (1) Bong-Hwan Lee's deep love for his mother which can be drown from what he frequently asked after his mother, (2) his careful consideration for his family and asking them to send him things necessary for his duties in the diplomatic delegation, (3) his self-respect pride on participating the diplomatic delegation and expectation for the incorruptible diplomatic envoy, and (4) his detailed reports on significant things of his experiences in the diplomatic delegation.

The TongShinSa-related letters in the WooNyeomJaeSooSeo is the first collection of Hangul letters written by attendants of the envoy TongShinSa,

as shown above. Therefore, the WooNyeomJaeSooSeo will become one of valuable cultural heritages through which we can concretely look into not only interests of the then attendants of TongShinSa but also stories between the attendants' families and them.

Key-words : WooNyeomJaeSooSeo, Tongshinsa, Bong-Hwan Lee, letter,
Reciprocating prose and poetry

한태문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609-735)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인문관교수연구동 411호

전화번호 : (051)510-2009, 017-854-2009

전자우편 : hantm@pusan.ac.kr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0년 12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12월 15일 게재 확정됨.
--